

낙농가들은 우유 생산 뿐 아니라 홍보요원이 되자



조 장 환
전남도지회장

우리 낙농업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사양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절약으로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적 목장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.

남아도는 우유소비를 위하여 우리 낙농가는 우유를 생산하는 생산농가일 뿐 아니라 우유소비 홍보요원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.

우리 낙농가는 낙농 및 육우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목장업의 소득증대로 낙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복지농촌 건설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우리 낙농가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의 기치 하에 일치 단결하고 최고급 품질의 원유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.

낙농육우협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 도지회와 낙우회를 육성 발전시켜야 하고 낙농가들의 애로사항 등 견의를 수렴하고 대정부 및 우리 농가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그 뜻을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대변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.

우리 낙농업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사양관리에 필요한 인건비

절약으로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적 목장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.

우리 낙농업의 사양방향이 종전의 벗꽃조사료에서 T.M.R. 사료와 수입조사료 의존도가 높아 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 바 우리 자급조사료 확보는 조사료포 확보와 기계화가 관건이다. 따라서 조사료포 구입자금 또는 토지 임대료를 장기 저리 응자방법으로 쌀 전업농처럼 시행되어야 하고 지역별 기계화 단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

이제 송아지 가격 하락으로 수송아지의 무조건 방매보다는 우리 농가에서 육우사육도 병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. 육우의 육질을 개선시키고 품질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양관리의 개발 및 쇠고기 확대소비의 홍보 방안 등을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.

또한 원활한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낙농자조금사업은 물론 자조금법을 제정하여 전 낙농가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.

또한 분유재고는 국가의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일차적으로 우리 낙농가의 부담이므로 남아도는 우유소비를 위하여 우리 낙농가는 우유를 생산하는 생산농가일 뿐 아니라 우유소비 홍보요원화가 되어야 할 것인 바 우리 농가 스스로가 적극 노력하고 원유 차등제 가격제도의 도입 및 원유의 치즈 기타 가공식품의 개발 연구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.

끝으로 낙농업은 1차 산업 중에도 최고의 기술과 최다의 자본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므로 국가의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 바이다.

(필자연락처 : 061-331-4187)